

본문 : 에베소서 2 장 10 절

제목 : 이처럼 사소한 것들 (Small Things Like These)

1.

가끔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문득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걸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어떤 삶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일까?"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행할 때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되면 행복감이 밀려 옵니다. 매일 매일 벌어지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요? 이번 겨울 미네소타의 겨울은 매우 혹독합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미니애폴리스 주변으로 벌어지는 ICE의 서류미비 이민자들 검거 중에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의 소식을 접하며 우리는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생활하는 미네소타 안에서 벌어진 비극 앞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고 어떤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유색인종,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행해지는 혐오와 배제를 연료삼아 벌어지고 있는 비극 앞에서 때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희생자 중 한 명은 이민국 요원들에 의해 수색을 당하는 여인을 돋기 위해 끼어들었다 죽게 됩니다. 내 일 아니야, 괜히 끼어들면 번거로워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르네굿과 프레티의 죽음을 두고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저는 이 나라의 시민도 아니고, 이 나라의 정책에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고 행복한 삶일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 하던 중 작년에 읽었던 소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책은 작년에 읽은 소설 중 가장 인상 깊은 소설였습니다. 이 소설을 가지고 어떤 삶이 아름답고 선한 삶인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 이처럼 사소한 남자, 펄롱

이 소설은 2024년 킬리언 머피(Cillian Murphy)가 주연했던 영화와 같은 제목을 가진 원작소설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이 책은 클레이 키건이라는 아일랜드의 여자 소설가의 작품입니다. 이 책은 Bill Furlong이라는 한 40을 앞둔 남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1985년 Barrow 강이 흐르는 아일랜드의 한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William이라는 이름의 애칭이 빌인데, 아일랜드에서는 천주교인들은

쓰지 않는 기독교식 이름입니다. 빌은 부둣가에서 석탄을 가져다가 창고에 쌓아 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배달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고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일린이라 하는 아내와 다섯 명의 딸을 낳아 기르는 가장입니다. 석탄의 검댕이를 묻히는 직업이라 가난하지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딸들은 그 도시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여학교인 St. Margaret 학교를 다니고 있고, 빌은 그의 딸들이 이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여학교는 막달레나 수녀원의 수녀들이 운영하는 천주교 학교였고 Magdalene Laundries 라 불렸습니다.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single mom이나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낙인 찍힌 여성들을 수용하는 가톨릭 기관이었고 주로 세탁물을 다루는 일을 했기 때문이었죠. 문제 여성들에게 세탁일이나 다른 노동을 시키면서 죄를 씻거나 간생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쉬쉬하며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딸들이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빌은 웬일인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생활을 계속합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잠 자리에 눕지만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내다 보면서 지나가는 개나 사람 구경을 하곤 합니다. 빌의 됨됨이는 어떨까요? 빌은 석탄을 배달하는 트럭을 운전하며 가다가도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차를 멈추고 동전을 줘어 주곤 합니다. 동네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 웬지 마음이 쓰이는 사람입니다. 빌이 이렇게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은 그의 특별한 과거 때문입니다.

3. 미시즈 월슨의 돌봄

빌의 어머니는 미시즈 월슨의 집에서 집안 일을 봄주는 하인이었습니다. 미시즈 월슨은 전사한 남편의 유족 연금으로 살아가며 농장을 운영하는 노파였습니다. 개신교인이었던 미시즈 월슨은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난 빌과 그의 엄마를 내 쫓지 않고 계속 집에 머물게 해줍니다. 아니 오히려 빌을 극진히 보살펴 줍니다. 빌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고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학교에 보내줍니다. 빌의 엄마는 그가 12 살이 되던 해에 죽습니다. 미시즈 월슨은 그의 어머니의 죽음에도 그를 내쫓지 않고 돌봅니다. 하지만 빌은 주변 아이들의 놀림거였습니다. 미혼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던 거죠. 어떤 날은 등쪽의 옷이 침이 가득 묻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혼모의 아이로서 사회적 차별을 받지만 동시에 미시즈 월슨이라는 한

개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학교를 졸업한 동시에 기술 학교에 들어가 기술을 배운 후 석탄 배달 회사에 들어가 일하게 됩니다. 성실하고 모나지 않은 성격 때문에 승진도 하게 되지요.

그런 빌은 어느날부터인지 모르게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인인 아일린과 대화와 함께 시작되는 그의 고민이 드러나는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아무튼 우리는 괜찮지?”

“재정적으로 말이야? 올해는 괜찮지 않았어? 지금도 매주 신용조합에 적금 넣고 있어. 내년에는 대출을 받아서 겨울 되기 전에 앞쪽 창문을 새로 해야해. 외풍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해.”

“내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펠롱이 한숨을 쉬었다. **“그냥 오늘 밤 좀 피곤한가봐. 신경쓰지 마.”**

이게 다 무엇 때문일까? 펠롱은 생각했다. 일 그리고 끝 없는 걱정. 캄캄할 때 일어나서 작업장으로 출근해 날마다 하루 종일 배달하고 캄캄할 때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어둠 속에서 잠에서 깨어 똑같은 것을 또다시 마주하는 것.

아무것도 달라지지도 바뀌지도 새로워지지도 않는 걸까? 요즘 펠롱은 뭐가 중요한 걸까, 아일린과 딸들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지도 뭔가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때로 이 나날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다산책방, 이처럼 사소한 것들, 43-44 쪽).“

그러니까 그의 고민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사는 삶이 의미가 있을까?”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매일 보게 되는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을,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 그가 마주 하는 매우 사소한 것들이 마음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에 걸린 가시처럼 주변의 일상들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요즘 우리들의 고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4. 수녀원에서 만난 세라

이런 삶이 의미 있는 삶일까 생각을 하는 펠롱에게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가 수녀원에 석탄 배달을 가게 되는데 그곳의 석탄 창고에서 웅크리어 맨발로 앉아 있는

어떤 어린 미혼모를 만나게 됩니다. 세라란 이름의 아이는 아기를 낳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옷이 세어 나온 젖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수녀원 본관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수녀원장은 별일이 아닌 것처럼 대응합니다. 그러고는 수녀원장은 돈봉투를 주면서 아일린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서 조금 당혹스러운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딸이 다섯인데 아들이 하나도 없으니 섭섭하지 않느냐, 수녀원이 관장하는 세인트 마가릿 학교에 들어오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아 불벼서 쉽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 수녀들은 암암리에 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돈봉투를 통해 그이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구요.

수녀원에서 이런 일을 겪고 나오는 펠롱의 감정을 책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펠롱은 억지로 자동차 키에 손을 뻗어 시동을 걸었다. 다시 길로 나와 펠롱은 새로 생긴 걱정은 밀어 놓고 수녀원에서 본 아이를 생각했다. 펠롱을 괴롭힌 것은 아이가 석탄 광에 갇혀 있었다는 것도, 수녀원장의 태도도 아니었다. 펠롱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 아이가 받는 취급을 보고만 있었고 그애의 아기에 관해 묻지도 않았고 – 그 아이가 부탁한 단 한가지 일인데 – 수녀원장이 준 돈을 받았고 텅빈 식탁에 앉은 아이를 작은 카디건 아래에서 젖이 새서 블라우스 얼룩이 지는 채로 내버려두고 위선자처럼 미사를 보러 갔다는 사실이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 99쪽)“

모두가 쉬쉬하며 넘어가며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던 그 지역 사회의 부조리와 펠롱은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는 양심의 가책으로 시달립니다.

5. 세라를 데리고 나오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펠롱이 과감히 결단한 행동 하나로 마무리 됩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나온 펠롱은 집이 아니라, 수녀원의 석탄 저장고로 향합니다. 그곳에 세라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세라는 어둡고 추운 그곳에 있었고 펠롱은 소녀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눈이 오는 시내를 통과해서 맨발의 세라를 데리고 가는 길은 짧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과 마주해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이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찌려고 그러지? 저 아이는 딸은 아닌 것 같은데? 수녀원과 같등이 생기면 빌 펠롱의 딸들은 어떻게 되는거지?’ 사람들은 수근거릴테지만 펠롱은 말 없이 그 아이와 함께 걷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 길 위에서 펠롱이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 상쾌하고 행복합니다. 펠롱은 자신이 결단하고 행동했을 때,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참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소설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펠롱은 알았다. 벌써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생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 평생 지고 살아야 했을 일은 지나갔다.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고통은 어떤 것이든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이미 겪은 것, 어쩌면 앞으로도 겪어야 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맨발인 아이를 데리고 구두 상자를 들고 걸어 올라가는 펠롱의 가슴속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펠롱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어떻게든 해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 120-21쪽)“

펠롱의 결단의 원동력은 먼 옛날 미시즈 월슨의 착한 행동이었습니다. 미시즈 월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그의 어머니도 그곳에 들어갔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옛날이었다면, 펠롱이 구하고 있는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는 모든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결단하는 이 행동은 자기를 돌보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6.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작품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선한 일이란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선하다 착하다는 뜻의 헬라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gathos 와 Kalos 이지요. 아가토스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칼로스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뜻하는 좋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선하다는 아가토스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자 가장 빼어난 성품인 자비와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도 훌륭한 믿음의 본질은 내 몸을 사용해 선을 행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분인지 펠롱처럼 결단과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혼돈과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무력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수 만 없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자비를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해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단과 선한 일 안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니애폴리스에서 희생 당한 Alex Preti 가 도와주려 했던 여인의 마음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대신에 희생 당한 프레티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일이 생긴다면 그녀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발 벗고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이를 도울 때 우리는 상대방을 돋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돋고 보살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어떤 선한 행동이든 실천해 옮겨보세요. 그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려 봅니다. 불법 이민자(Irregular Immigrants)라는 호칭에는 폭력이 담겨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대신 서류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s)라 불러보면 어떨까요? 인간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낙인 찍는 대신, 서류가 미비하거나 절차가 미비할 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그들의 인간됨은 존중받을 겁니다. 이런 작은 시선 하나를 수정해 가는 것에부터 우리의 선함이 실천되어가면 좋겠습니다. 비극을 외면하지 않을 용기와 실천이 우리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